

# 北韓의 朴趾源 小說研究

최응권\* · 장연호\*

차 례

- |                      |                       |
|----------------------|-----------------------|
| I. 서론                | IV. 연암소설의 문체, 예술특성    |
| II. 연암 관련 저서출판과 연구활동 | V. <양반전>, <호질>, <허생전> |
| III. 박지원의 미학견해       | VI. 결론                |

## I. 序 論

古典作家중에서 燕岩 朴趾源만큼 北韓에서 각광을 받은 作家는 없다. 본세기 50년대부터 그의 著作들이 많이 翻譯되어 출간되기 시작하였고 研究論文과 研究著作들도 많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그의 文學成果에 대해 높은 評價를 내리면서 중점적으로 研究를 추진하여 왔다. 그의 作品들은 大部分 한글로 翻譯되었으며 <兩班傳>과 같은 作品은 영화로도 개편되었고 어떤 詩들은 曲까지 붙여 노래로도 불리웠다. 그들은 朴趾源을 思想家로서나 文學家로서나 고대중세의 전시기를 통하여서도 가장 높이 솟아 있는 봉우리의 하나라고 認定하고 있으며 朴趾源의 文學과 떼어 놓고 18세기 봉건조선에서 일어난 사상예술 분야에서의 전변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sup>1)</sup>고 보고 있다. 朴趾源의 作品에 대해서

---

\* 중국연변대학교 한어학과 교수

1) 『박지원작품집』, 서문, 『조선고전문학선집』(66), 문예종합출판사, 1993년, p.4.

도 讖辭를 아끼지 않고 있다. 장편기행문 『熱河日記』에 대해서는 구성의 독창성과 내용의 풍부성에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兩班傳>을 비롯하여 <방경각의전>에 실려 있는 단편소설들이나 <좌소산인에게 준다>와 같은 시작품들, <공작관문고서문>, <영치고서문>과 같은 길지 않은 서문에 이르기까지 朴趾源의 예술문학작품들과 평론적 저술들에는 당시의 심각한 사회경제적 변동과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첨예한 新舊투쟁이 반영되어 있으며 시대의 선진적 사상조류를 대표하는 작가 朴趾源의 사상미학적 견해와 예술적 기량이 구현되어 있다<sup>2)</sup>고 보고 있다.

朴趾源에 대한 이와 같은 높은 評價는 90년대에 새삼스럽게 논의된 것이 아니라 50년대에 일찍 거론되었었다. 當時 作家동맹위원장을 맡고 있던 한설야는 《박지원탄생 220주년 기념보고회》에서 연암을 위대한 사상가, 탁월한 작가라고 부른다고 하였고, 전체 문학사적으로 볼 때에 연암은 그 중에서도 높게 거연히 솟아 있는 최고봉의 하나<sup>3)</sup>라고 평가하고 있다.

燕岩은 이와 같이 北韓에서 줄곧 아주 높은 評價를 받아 왔다. 아래에 내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北韓의 研究成果들을 考察해 보고자 한다.

## II. 燕岩관련 著書出版과 研究活動

### 1. 原著出版과 作品의 선정기준

北韓에서는 두차례에 걸쳐 古典文學選集을 出版했다. 처음은 33권집으로 나왔고 두 번째는 90권집으로 出版되었다. 1961년에 국립문예서적출판사에서는 33권집에 제25권, 제26권, 제27권 세권으로 『박지원작품선집』을 出版하였다. 개별 作家로서는 최고이고 또 古典文學을 모두 33권으로 묶어 내는데 거기에서 3권이나 차지하였다는 이 한 사실만으로도 燕岩의 위상이 얼마나 높게 評價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또 古典文學研究에서 기념비적인 事件이라고 하는 90권집 『조선고전문학선집』에서도 두권이나 차지하였다(제66권, 제67권). 北韓의 古

2) 앞의 서문, p.4.

3) 《문학신문》, 1957년 3월 7일.

典文學연구에서 권위를 자랑하는 김하명이 주해를 달고 또 긴 서문을 쓰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그의 原著들이 많이 翻譯되어 出版되었다. 1954년 9월에 최익한, 홍기문의 翻譯으로 「연암작품선집」이 出版되었고 1956년 5월에도 그들에 의해 「연암작품선집」이 出版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이상호가 翻譯한 「熱河日記」를 上, 中, 下로 나누어 국립문예서적출판사에서 1955년 5월 30일, 1956년 6월 30일, 1957년 9월 10일 모두 세차례에 걸쳐 완간을 보았다. 北韓의 古典 국역자중 가장 이름있는 大家인 洪起文이 翻譯한 「박지원작품선집」이 국립문예출판사의 出版으로 1960년 12월 25일에 出版되었는데 「박지원의 작품에 대하여」라는 序文이 실려 있고 作品을 選定하는 기준도 아래와 같이 피력하고 있다.

- (1) 文章의 측면에서 優秀한 것도 思想의 측면에서 떨어지는 것은 選拔對象에서 제외되었다. <방경각의전>은 選拔하나 貂表記는 選拔하지 않았다.
- (2) 思想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漢文文章의 優秀한 作品도 망라한다. 때문에 伯嫂朴氏墓誌銘, 洪德保墓誌銘을 選拔한다.
- (3) 朴趾源의 개인의 性格, 재질을 엿볼 수 있는 作品은 選拔한다. 하여 金應之, 李仲存에게 보낸 답장—편지 등은 選拔한다.

이런 選定기준에서도 思想性이 최우선이다. 때문에 古典小說 분야에서 <兩班傳>, <虎叱>, <許生傳>이 가장 큰 중시를 받았으며 90년대에 와서는 <烈女咸陽朴氏傳>도 주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관계로 <兩班傳>, <虎叱>, <許生傳> 등 세 作品만 묶은 단행본이 여러차례 出版되기도 하였다. 1957년 1월 24일 <범의 꾸중>으로 책명이 되고 석인이 翻譯한 단행본이 국립문예출판사에서 出版되었다. 이후로 이런 形式의 단행본이 여러차례 出版되었으며 아동문학 문고에서도 이 세편을 選採하여 出版하였다.

## 2. 研究活動

研究著書들도 몇권 刊行되었다. 가장 代表性있는 것이 김하명의 「燕岩朴趾源」이다. 이 책은 분량이 384쪽에 달하며 평양국립출판사에서 1955년에 出版

했다. 이 책은 저자가 근 5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내어 놓은力作이라고 한다.

그 다음으로는 燕岩 朴趾源의 탄생 220주년을 기념하여 국립출판사에서 1957년 10월에 出版한 『燕岩研究論文集』이다. 이 論文集에는 7篇의 글이 실렸는데 文學에 해당되는 글은 두편이다. 당시 作家동맹위원장으로 있던 韓雪野의 「燕岩 朴趾源의 생애와 活動」이라는 글과 김하명이 쓴 「燕岩 朴趾源의 유산과 오늘의 文學」이라는 글이다.

이밖에도 「박연암연구」라는 論著가 있는데 이 論著에서는 정치, 철학, 경제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文學論文도 있어 주목되는데 김하명의 「燕岩 朴趾源과 그의 文學」이라는 글이 실렸다. 그리고 1957년에 국립문예서적출판사에서 『古典作家論』을 펴냈는데 여기에 신구현의 「탁월한 사실주의 작가 연암 박지원의 연구」와 김하명의 「연암 박지원의 풍자 작품들과 그 예술적 특성」이라는 燕岩에 관한 글 두편이 실렸다. 김하명의 글은 장장 216쪽에 달한다. 이밖에도 수십편의 論文들이 燕岩의 小說을 評價하고 있다.

北韓에서는 이와 같이 原著들을 翻譯하여 出版하고 또 研究著書, 論文들을 간행했을 뿐만 아니라 몇차례 紀念活動도 가졌었다. 제일 성대했던 것은 燕岩 朴趾源의 탄생 220주년 기념회 모임이다.

北韓의 신문은 모임에 관해 상세하게 보도한바 있다.<sup>4)</sup> 그들은 기념모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學術討論會도 가졌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역사가로서의 박지원」, 「연암 박지원의 평론활동-그의 사의 지법」에 대하여 역사학 박사 박시형과 평론가 신구현이 각각 학술보고를 하였다. 평양사범대학과 과학원에서도 「연암의 사상과 문학」(김일성종합대학부교수 최익한), 「『열하일기』에 대하여」(평론가 윤세평), 「연암 박지원의 교육사상에 대하여」(평양사범대학 교원 박형성) 그리고 기타 제목으로 각각 학술보고회가 진행되었다. 또한 작가동맹회의실에서 박연암의 경제, 철학, 문학에 관한 학술보고회가 진행되었다.<sup>5)</sup> 이 밖에도 청진시, 함흥시, 원산시, 개성시 등에서도 기념활동들이 있었다고 쓰고 있다. 1955년 12월 10일에는 朴燕岩서거 150주년 기념보고회가 있었다. 신구현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4) “연암 박지원 탄생 220주년 기념회 진행”, 《문학신문》, 1957년 3월 7일.  
 5) “박지원 탄생 220주년 기념학술보고회를 진행”, 《문학신문》, 1957년 3월 7일.

생각컨대 서거 150주년을 계기로 박연암이 일부 외국에 소개된 일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견성 있게 일하였다면 박연암은 위대한 문호로서 몇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선전되며 조선인들의 민족적 긍지감과 조선인민들과 세계평화애호 인민들간의 국제적 친선을 더욱 튼튼히 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중국의 위대한 시인 굴원과 그의 대표작 <離騷>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조선의 굴원으로 우리 조상들이 존경하여 온 송강 정철 및 조선의 이소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思美人曲> 등 그의 노작들은 잘 모르고 있거나 알더라도 그릇되게 알고 있었다. 이러한 형편은 김만중에 대해서도, 김립에 대해서도 신재효에 대해서도 찾아 볼 수 있다.<sup>6)</sup>

신구현은 여기서 朴趾源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예견성있게 일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朴燕岩은 세계적인 문호로서 자격이 당당하지만 후세 사람들의 宣傳이 부족한 탓으로 그 위상이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단면에서 민족적인 긍지감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의도적인 태도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北韓은 이렇게 1957년에 대대적으로 朴燕岩 기념활동을 가졌기에 그 影響이 外國에까지 파급되어 일부 나라들에서도 기념활동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燕岩 朴趾源의 사상과 예술은 조선인민들 속에서 뿐만 아니라 널리 전세계 평화애호 인민들 속에서도 많은 독자들을 획득하였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친근한 벗의 하나로 되었다<sup>7)</sup>는 것이다. 中國에서는 이 影響으로 일련의 기념활동이 있었다. 北京에서는 中國作家協會와 北京국립도서관의 공동 주최하에 조선의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 창시자인 박연암선생 탄생 220주년 기념회가 進行되었는데 이에는 500여명의 작가, 예술인 및 청년들이 參加하였으며 중국작가협회 서기처 서기 장극가는 자기 연설에서 박연암이 중국인민의 벗이라고 지적하고 조선의 시인이며 소설가이며 문학평론가인 박연암은 1780년에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문화도 연구하였다고 말하였다.<sup>8)</sup> 이밖에 北京大學에서도 기념모임이 있었고 中國의 《文藝報》에서도 장편기념문장을 실었다. 1957년 12월 8일자 《文藝報》는 《朝鮮의 탁월한 사실주의 文學의 巨匠》이라는 커다란 표제하에 燕岩 朴趾源선생의 생애와 활동을 높이 평가하는 도병위의 논설을 그의 사

6) 신구현, 「중요한 첫걸음」, 《문학신문》, 1957년 1월 17일.

7) “연암 박지원 탄생 220주년 기념회에서 한 한철야동지의 보고”, 《문학신문》, 1957년 3월 7일.

8) 《문학신문》, 1957년 12월 19일.

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와 같이 1955년, 1957년에 성대한 기념모임을 가졌고, 1967년에는 燕岩탄생 230주년을 맞이하면서 작은 규모의 기념모임들이 있었으며 文學에서는 김하명이 기념논문을 發表했다. 「연암 박지원의 애국사상과 그의 문학의 혁신성」이라는 표제하에 부제는 「-연암 탄생 230주년을 맞이하면서-」라고 달았고 사회과학원출판사에서 出版하는 『語文研究』 1967년 제1기에 이 글을 실었다. 분량이 좀 많은 글로서 燕岩의 小說에 대해서도 높은 評價를 내리고 있다.

우리는 연암에게서 독창적인 주제를 탐구하고 해명하며 짧은 형식에 많은 내용을 담는 솜씨, 그의 뛰어난 예술적 전형화의 솜씨를 배워야 할 것이다. 연암은 사상이 명확하면서 깊은 예술적 감동을 주며 간결한 필치로써 사람들의 머리에다 심각한 인상을 아로새기는 생동한 형상을 수많은 그려내었다.<sup>9)</sup>

이렇게 기념활동을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燕岩의 小說을 희곡으로 만들어 공연까지 하였다. 1957년에 조령출의 각색으로된 <양반전>이 공연되었고 소설 <민옹전>과 시 <좌소산인에게 줌> 그리고 박지원의 원작, 박동실 작곡으로 된 독창 <총석정의 해돋이 구경>도 공연되었다.

이와 같이 北韓에서는 그의 原著들을 翻譯, 정리하여 出版했는가 하면 기념 활동도 많이 가진 편이었다. 이색적인 것은 <兩班傳>을 연극으로까지 각색했으며 후일에는 이것을 근거로 영화까지 만들었다는 것이다. 수증의 자료가 확실치 못하여 언급하지는 못하나 이밖에도 原著의 번역출판이나 研究論文, 研究著書들도 많았으리라고 생각된다. 실례를 든다면 『朝鮮文學』 1957년 3기에서는 「朴趾源先生의 생애와 저서목록」이라는 글을 실었는데 朴趾源의 全集을 모두 25권으로 나누었고 그의 作品들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 50년대에 이미 그의 作品의 정리를 끝마치고 번역출판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아무튼 北韓에서는 50, 60년대에 朴燕岩小說에 대한 研究가 활발히 進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0년대, 90년대에 와서는 그 열기가 좀 식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계속 重要한 作家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

9) 김하명, 「연암 박지원의 애국사상과 그의 문학의 혁신성」, 『어문연구』, 1967년 1기.

### Ⅲ. 朴趾源의 美學見解

北韓에서는 朴趾源의 小說을 研究할 때에 먼저 언급하는 것이 그의 美學見解이다. 美學見解라고 하는 것을 따져 보면 기실은 作家가 作品을 대하는 태도와 동기이며 우리말로 풀어 쓴다면 文學觀이나 創作動機와 별다른 점이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文學이란 現實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文學이 藝術의 한 形式이므로 해서 現實과 美적인 關係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文學에서 現實과 美적 關係를 맺음으로써 드러나는 文學으로의 구체화는 美적 반영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처럼 美적 반영이 이루어진 作品은 특유하게 現實과 關係를 맺음으로써 사회적 意識의 한 형태가 되는데 이처럼 美적 반영을 통해 사회적 意識의 하나로 나온 文學은 결국 現實에 대한 인식교양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北韓의 學者들은 美學을 人間이 現實을 예술적으로 파악하는 本質과 그의 기본적인 法則들에 관한 科學<sup>10)</sup>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장에서는 燕岩이 文學의 本質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떤 자세로 小說創作에 임했는가에 대한 北韓學者들의 觀點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北韓學者들이 燕岩의 美學觀에서 제일 먼저 긍정적인 評價를 내리는 부분이 그의 “모방주의”와 “형식주의”를 반대한 부분이다. 燕岩은 우선 옛글의 무의미한 모방을 설교하는 兩班 사대부들의 형식주의 미학을 반대하여 진출하였다<sup>11)</sup>는 것이다. 50, 60년대에 맹활약을 벌이던 윤세평도 이와 똑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는 우선 燕岩의 유물론적 사상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나서 “모방주의”와 “형식주의”를 배격했다고 쓰고 있다.

그는 첫째로 醇正文學을 標榜하는 자들이 선행한 中國文學을 모방함으로써 우리의 生活現實을 正當하게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文學藝術의 民族的 形式을 말살시킨 데 대하여 분노를 가지고 썼다.<sup>12)</sup>

10) 윤세평, 「박연암과 그의 미학적 견해」, 「박연암연구」, 국립문예출판사, 1955년.  
 11) 「우리나라 고전작가들의 미학견해자료집」, 조선예술총동맹출판사, 1964년, p.257.  
 12) 윤세평, 「박연암과 그의 미학적 견해」, 국립문예출판사, 1957년, p.170.

50, 60년대에 이와 같은 평가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90년대에 와서도 이 見解는 변하지 않고 있다. 김하명은 『朝鮮文學史』에서 燕岩은 당시에 있어서 문학발전의 가장 주되는 장애물이 양반사대부들의 “모방주의”, “형식주의”임을 옳게 간파하고 이를 반대하여 정력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sup>13)</sup>고 쓰고 있다. 이 견해를 증명하는 자료로는 주로 <贈左蘇山人>, <孔雀館文稿自序>, <嬰處稿序文> 등 글들이다. 한마디로 무턱대고 옛것을 模倣하는 것은 마치 수박절이나 할고 고추를 통채로 삼킨차와 더불어 맛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없고 이웃집 털옷이 부러워서 한 여름에 빌려 입은 자와 때를 이야기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詩나 小說의 진미를 모르는 자라는 것이다. 이는 참된 文學藝術이란 반드시 시대적 풍조, 그 傾向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主張이다.

(2) 朴燕岩의 美學觀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그의 사실주의 創作原則이라고 여기고 있다. 燕岩은 문학예술의 묘사 대상으로서의 自然과 社會가 시대와 함께 변하며 민족 호상간에 서로 특성이 있는 만큼 우리 나라의 바로 오늘의 현실생활을 꾸밈없이 진실하게 묘사함으로써만 그 문학이 비로소 인식적 및 교양적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는 유물론적이며 사실주의적인 견지에 옳게 서 있었다<sup>14)</sup>는 것이다. 그들은 燕岩의 美學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주의 정신이며 그의 創作의 基本 志向은 現實의 진실한 묘사 즉 사실주의 精神이며 그것은 現實에 대한 실사구시 精神에 토대하고 있다고 主張한다. 燕岩은 사실주의 묘사원칙을 “模寫眞境, 切近情理”란 말로 표현하였다. 다시 말하여 현실생활 속에 깊이 침투하여 그의 참된 경지(眞境) 즉 그 본질을 그려내며 人間들의 內面世界 情理를 절실하게, 근사하게 그리는 것이 燕岩의 예술적 신조였던 것이다. 이렇게 그의 作品 특히 小說에서의 사실주의 精神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燕岩의 小說에 사실주의적 要素가 내포되어 있다는 관점, 燕岩의 小說作品은 계몽적 사실주의라는 觀點이 있었으며 마지막에는 燕岩의 小說作品을 위시한 文學作品은 완전히 비판사실주의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 主流적인 觀點으로 되었다.

13) 김하명, 『조선문학사』 (5),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년, p.221.

14) 신구현, 『우리나라 고전작가들의 미학견해자료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4년, p.258.

김하명을 비롯한 일부 토론자들이 박연암의 문학에서 비판적 사실주의 시원을 보는데 대하여 류창선, 김민혁 등은 우리 나라에서 비판적 사실주의는 20세기 문학 특히 라도향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박연암은 단편들을 많이 썼는바 단편형식에서 김민혁과 같이 성격의 형성과 변화과정의 완전한 표현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단편소설의 대가라고 할 채호브 작품들에 있어서조차 그러한 완벽한 묘사는 언제나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sup>15)</sup>

여기에서 보면 류창선, 김민혁 등은 비판적 사실주의는 하나의 文學思潮로서 近代 資本主義의 産物이며 또 人物性格의 典型化가 되어야 하는데 朴趾源의 小說은 이 두가지 조건이 구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적 사실주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으며 사실주의적 요소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 學者는 사실주의적 要素만 있다고 한다면 최치원의 시가도 그런 性格을 띠고 있기에 그와 동등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주의 발전단계를 찾아 볼 수 없기에 그 보다 한차원 높은, 그러나 비판적 사실주의 思潮보다는 한 단계 낮은 “계몽적 사실주의”라는 概念으로 규정지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연암의 문학을 계몽적 사실주의라고 해서 그의 사실주의 작가로서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저해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18세기 당시의 현실과 당시 일반 사조와 연관되며 또 시대적으로 다른 모든 나라들의 문학사조와도 거의 같은 시대적 단계에 놓이게 된다. ……아는바와 같이 비판적 사실주의는 일정한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규정성이 있다. 비판적 사실주의는 거의 모두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적대적 계급의 본질이 명백해진 19세기에 이르러 작가들이 자기 생활 상태와 호상 관계를 냉정한 눈으로 관찰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기에 와서 비로소 개화발전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18세기 조선사회에 있어서 아직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본질이 명백해지지 아니한 당시에 살고 있던 연암이 우수한 계몽주의적 사실주의자로 활동한 것은 자기 역사적 사명을 훌륭하게 수행한 것으로 되며 응당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의 <민옹전>, <예덕선생전>, <마장전>, <범의 꾸중> 등에서 강하게 느껴지는 리성의 세계, 그의 정론적 색채는 그의 문학이 계몽주의적 사실주의 방법에 의거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sup>16)</sup>

15) 윤세평, 「우리나라에서 사실주의 발생론의에 대한 약간의 의견」, 『조선어문』, 제6기.

16) 류창선, 「사실주의와 비판적 사실주의의 발생문제」, 『조선어문』, 1957년 제2호.

류창선은 이 글에서 비판적 사실주의는 계급적 본질이 명백해진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개화발전한 것이므로 계급적 본질이 아직 명백하지 않은 18세기에 산 연암은 계몽주의적 사실주의자로 자리매김을 하게되며 그의 문학 역시 계몽주의적 사실주의 방법에 의거하여 창작되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學者들 즉 고정옥, 윤세평, 박종석 등은 모두 燕岩의 小說을 비판적 사실주의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고정옥은 그의 「조선고전 문학에서의 사실주의의 발전 단계들」(『조선어문』, 1960년 4기)이라는 글에서, 윤세평은 「연암과 사실주의의 힘」(『조선문학』, 1957년 3기)이라는 글에서, 김하명은 1955년에 출판한 『연암 박지원연구』 등 저서에서 모두 이 관점을 천명하였다. 그들은 朴趾源의 文學을 完全한 의미의 사실주의 文學이라고 하면서 비판적 사실주의란 사실주의의 역사적 形態이며 적대적 계급사회의 제 모순이 첨예화 됨으로써 社會 자체내의 비판적 기초가 성숙되고 착취적 社會制度의 온갖 악덕과 부정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가능케 하는 人間意識의 장성이라는 條件하에서 形成된다고 한다. 아울러 비판적 사실주의의 特征에 있어서도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과업으로 등장한 시기의 비판성을 의미하며, 비판적 진실성의 전면적 支配가 創作方法의 原則이며 社會가 나아갈 출구를 보여주지 못하는 제한성을 갖는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李朝 봉건사회의 노후성과 낙후성을 반대하기 시작한 사회적 역량이 출현한 18세기말 燕岩의 文學에서 비판적 사실주의 文學의 시원을 열어 놓았다고 여긴다.

90년대에 들어 와서도 이러한 見解는 계속되고 있다. 연암의 선진적 세계관과 사실주의적 창작방법의 배합은 이 시기의 가장 기본적인 모순을 예술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봉건제도를 반대하여 손에 무기를 들고 싸우는 농민의 형상을 창조하게 하였다<sup>17)</sup>고 보고 있으며 연암의 사상과 예술은 이 시기 선진사상과 사실주의 문학발전의 새로운 지표로 되었고 세계문화의 보물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사실주의 발전의 새 단계를 열어 놓은 귀중한 민족문화의 재부<sup>18)</sup>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시종일관하게 그의 小說의 사실주의 性格을 크게 強調하고 있다. 그들은 燕岩이 文學藝術의 묘사 대상으로서의 自然과 社會가 時

17) 김하명, 『박연암선집』 (66)서문, 문예출판사, 1994년, p.44.

18) 김하명, 『조선문학사』 (5),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년, p.255.

代와 함께 변하며 民族 상호간에 특성이 있는만큼 當時 社會의 現實生活을 꾸밈없이 진실하게 묘사함으로써만 그 文學이 비로소 인식적 및 교양적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는 唯物論적이며 사실주의적인 견지에 옮겨 서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미학사상을 바탕으로 燕岩은 文學에서 내용의 우위성을 主張하였으며 아름다운 것을 人民들의 노동과 생활에서 찾았다고 主張한다. 그가 民謠, 俗談 기타 인민 구두창작을 것처럼 높이 評價한 것도 이와 같은 人民的 立場과 사실주의적 見解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燕岩은 생활의 진실을 반영하라고 추동하면서 내용과 형식의 통일을 예술성의 중요한 표정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作家의 藝術的 기량을 련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였다. 그의 <騷壇赤幟引>은 독특한 비유적 手法에 의하여 文章의 구조와 그 機能을 심오하게 分析하고 있으며 <綠天館集序>는 사실주의 藝術의 전형화의 의의를 명철하게 논파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學者들은 現實의 반영에 推動하였으나 古典遺産에 대한 허무주의적 態度는 반대하면서 전통과 革新에 대해 正當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托古改制”의 사상을 계승하여 “法古創新”을 主張하였다고 쓰고 있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燕岩의 미학관에서 “模倣主義”와 “形式主義”를 반대한다는 것은 그의 애국정신에 기초한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思想과 직결된 것이며 그가 <虎叱>과 같은 作品을 써 낼 수 있는 기초로 된다는 것이다. 또 그의 사실주의 精神은 그 生命이 진실성에 있으며 그것이 기저로 되어 당시의 不合理한 現實을 비판할 수 있었고 하층민을 동정하고 노동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模倣主義”, “形式主義”를 반대하는 것과 사실주의 精神은 그의 미학관의 큰 두축을 이루며 그의 小說創作에도 결정성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여긴다.

#### IV. 燕岩小說의 文體, 藝術特性

文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作家 특유의 感情, 思想 또는 그러한 체계를 정확하게 전하는 言語의 한 특질이다. 다시 말하여 文體라는 것은 作家의 사고하는 方法, 感情이나 감각의 차이 같은 특유한 것, 그러한 개별적인 특수성을 독자적

으로 文字로 表現한 것이다. 이러한 文體는 기재형식적으로는 漢文體, 國文體로, 어휘, 어법적으로는 경어체, 평상체 또는 문어체, 구어체로, 수사학적으로는 산문체, 운문체, 또는 간결체, 화려체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이 文體는 作家의 개성적인 言語表現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재형식상에서 어떤 言語를 使用하는가에 대한 內容도 담고 있다.

文體면에서 朴趾源처럼 많은 물의를 일으킨 作家는 古典小說분야에서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正祖의 文體反正도 朴趾源을 위시한 실학자들의 참신한 文體가 유행되었기에 일어난 것이다. 특히 朴趾源의 『熱河日記』는 當時 선풍적으로 읽혀져 文體면에서 크게 影響을 미칠 추세에 있었다. 이러한 傾向을 正祖는 明, 淸의 稗史, 小品에서 나온 지극히 불손한 것들이라 여겨 이를 숙청하고 正統古文으로 바로 잡으려 했던 것이다. 이렇게 그 當時부터 朴趾源의 文體는 물의를 빚고 있었는데 北韓學者들도 역시 찬반의 논의를 계속해 왔다.

① 박연암의 예술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민의 언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인민과는 거리가 먼 것을 그렇게 과대하게 평가할 턱은 없지 않은가? 이것은 조선문학을 토론하는 어느 회의 석상에서 늙은 어학자 한분이 발언한 내용이다.<sup>19)</sup>

② 또 한문소설은 18세기에 이르러 박지원과 같은 사실주의적 작가를 낳은 것은 사실이다.……우선 한문소설과 국문소설이 동시에 진행되는 역사적 단계에 와서는 한문소설 또는 한문소설 계열의 작품이 갖는 인민성의 비중은 대체로는 적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작자의 계급적 출신이나 독자의 다과의 문제가 아니라 작품의 언어-형상적 형식의 문제 및 인민창작에 의거하고 있는 정도의 문제에 귀착한다.<sup>20)</sup>

①에서는 언어문제를 주로 거론하고 있는데 燕岩의 작품은 漢文으로 씌여졌기 때문에 인민과는 거리가 멀므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과대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②에서는 작품의 언어문제를 형식적인 문제에 귀결시키고 있으며 인민창작에 의거하고 있는 정도의 문제에 귀착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朴趾源의 文體에 대한 논의는 50년대부터 첨예하게 제기되었었다. 朴燕岩小說이 漢文으로 創作된데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90년대에 와서도 의연히 거론되었다.

19) 홍기문, 「박지원의 문체」, 『조선문학』, 1957년 3기.

20) 고정옥, 「조선문학의 장르에 관하여」, 『조선어문』, 1956년 6기.

연암의 작품들은 모두 한문으로 씌여졌기 때문에 일부 구전되어 인민들에게 알려진 것도 있었으나 직접적으로는 당시 교육받은 좁은 범위의 사람들만이 접촉할 수 있었을뿐 광범한 인민대중의 소유물로 될 수 없었다. 그가 자기의 모든 저작을 다른 실학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양반 통치배들까지도 포함한 선비들-지식인들을 계몽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기의 개혁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따라서 그의 호소가 주로 교육받은 지식층에 향해졌다는데 있다. 당시에는 아직 사회적으로 공용된 문자는 한자였고 일부 양반들도 더러 한글로 노래와 소설을 썼으나 그것은 극히 드문 현상이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연암은 인민의 이해관계를 호소하여 진출하였으나 아직 인민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바로 이 점은 실학운동의 제한성이며 이 운동의 약점이기도 하였다.<sup>21)</sup>

그러나 이와 같은 비판적인 견해에 반대되는 意見도 또한 만만치 않았다. 北韓의 漢文學研究에서 일인자라고 할 수 있는 洪起文을 위시한 여러 學者들은 燕岩이 漢文으로 小說을 創作한데 대해 긍정적인 態度를 취하고 있다.

만약에 <양반전>, <예덕선생전>, <범의 꾸중>등과 같은 작품이 우리말로 창작되었다면 박연암의 작품이 더 일층 광채 찬란할 것이 아닌가? 이것은 조선어사를 강의하는 중 흔히 학생들에게서 받는 질문이다. 이 질문과져 토론은 방향이 서로 다르나마 실상 일치한 견해로 되고 있다. 또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적지않은 동감자가 있을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어떠한 사물이든지 그 역사적 환경 및 조건과 결부해서만 비로소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박연암의 예술적 작품도 18세기 조선의 현실을 떠나서는 의한다는 것이 의미없는 것이다. 그 당시 조선에서는 한문을 중요한 서사어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식층들의 전문적 학습으로부터 일반적 저술에 이르기까지 전체 한문을 중심삼았던 것이다. 물론 박연암보다 한세기나 앞서서 김서포와 같은 분은 이미 정음문학의 건설을 주장하였고 그 자신 직접 정음문학을 위해서 활동하였다. 이점에 한해서 말할때는 박연암도 김서포의 탁월한 견해와 고귀한 공적에 비하여 손색을 면치 못한다. 그러나 그들의 정음문학에는 과연 우리 인민들의 용어가 사용되어 있는가? 다음에 인용하는 <사씨남정기>중의 일절을 보라. '원래(元來)동청(董淸)은 사부가(士夫家)의 자식(子息)으로 조실부모(祖失父母)하고 행지무상(行止無常)하여 도박(賭博)을 일삼으며 가업(家業)이 탕진(蕩盡)하여 생계(生計)가 망연(茫然)한디라.' 전부 열다섯 마디나 되는 중에서 오직 '일삼으며' 한마디를 제외하고는 깡그리 漢文 성귀의 라벨이 아닌가? 李朝一代를 통하여 아무리 漢字 어휘가 많이 침투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인민이 이런 글을 리해하였을 수는 없으리라. 더구나 정음소설에서는 안해가 남편을 상공(相公)이라고 부르고

21) 김하명, 『조선문학사』 (5),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년, p.255.

남편에 대해서 안해가(妾)이라고 자칭하나 일찍이 우리 구두어에서 이러한 대명사를 써본 적은 없다. 이것은 순연히 漢文式의 用語인바 정음 소설에서는 漢文式의 용어를 단지 정음자를 써 놓은데 지나지 않는다. 소설보다 시가에는 더한층 심한 것이 많다. 우선 '고고천변일륜홍(高高天邊日輪紅), 부상(扶桑)에 동실 노피 떠'나 또는 '죽장망혜단표자(竹杖芒鞋窺瓢子)로 천리강산(千里江山)들어 가나'등과 같은 예다. 그러나 중요한 서사어가 漢文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현상도 그다지 이상할 것은 없다. 박연암의 작품이 漢文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역사적 환경과 조건에 제약된 것인 만큼 그로써 그 천재적 예술의 가치를 낮추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니, 조선서는 수천년 계속하여 漢文을 서사어로 써왔고 그와 함께 수많은 漢文 문학가들이 쏟아져 나왔다. 박연암의 존재는 오직 조선의 漢文 문학을 빛내고 있을 뿐이 아니라 조선 사람의 천품을 증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sup>22)</sup>

흥기문은 위글에서 漢文으로 小說을 創作한 것을 當時의 역사적 환경속에서 고찰해야 하고 또 정음소설도 결국은 漢文 투성이므로 漢文으로 창작된 小說보다 별로 나올 것이 없다고 主張하면서 朴燕岩의 文體에 대해 아주 높은 評價를 주었다. 다른 學者들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밝힌바 있다.

① 박지원의 작품은 그것이 '순정(醇正)'의 '아체(雅體)'가 아니며 '비체'라고 봉건 지배 계급으로부터 공격과 탄압을 받았는데 그것은 박지원의 작품이 그의 과업과 슈제트에서만이 아니라 언어 말투에 있어서조차 특히 표현 방식에 있어서 독자적이며 조선적이었기 때문이다. 박지원의 작품은 漢文으로 표현되었지만 그는 확실히 중국의 雅體도 아니요, 그렇다고 하여 그의 俗體도 아니다. 이는 오로지 조선인민의 생활 감정으로 충만된 인민어, 그의 표현수법의 대대적인 리용에 귀착된다.<sup>23)</sup>

② 그러나 여기에 밝혀야 할 것은 그가 어려운 漢文을 사용함으로써 표현에 있어서의 민주성이 결여되었다는 일부의 지적들에 관한 문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조선에 한문자가 도래한 것은 아주 오랜 고대의 일로서, 전 중세사회를 통하여 그것은 지배적인 표현수단으로 통용되어 왔다. 특히 漢文字는 오랜 시일을 경과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음훈(音訓)으로 개편되어 중국의 그것과는 적지않은 차이들이 생기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은 조선적인 漢文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조선문학의 유산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標記文字를 가지고 시비할 것은 못되는 것이나,

22) 흥기문, 「박지원의 문체」, 『조선문학』, 1957년 3기.

23) 신구현, 「연암박지원 작품연구」, 『박연암연구』, 국립문예출판사, 1955년, p.123

漢文字에 依한 표현이 일부 국한된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 인민들에게 친근하기 어려운, 따라서 민족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인민의 리해관계에 확고히 서 있었던 박연암이 漢文字를 標記수단으로 쓰게 된 주요한 이유는 어디 있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선행한 실학 사상가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漢文字가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리조봉진 통치하에서 양반 통치계층을 대상으로하여 그들의 암둔, 무능력, 허위 등을 폭로 비판하는 論리장으로서 자기의 창작활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이다. 우에서도 보아온 바와 같이 박연암에게 있어서 문학은 낮은 통치계급에 대한 사상적 투쟁의 무기였으며 따라서 그들의 論리장이 되기 위하여서는 漢文字에 의한 표현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박연암은 중국사람들과는 달리 조선 사람이 漢文字를 배우는데 있어서의 불합리성을 누구보다도 똑똑히 알았으며 따라서 모국어에 기초한 민족문자의 가치를 인정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때문에 박연암은 漢文字로 표기를 하면서도 대담하게 인민적인 구두어를 인입하여 종래의 漢文體와는 아주 구별되는 새로운 문체를 확립하였다. 소위 醇正 文學者들이 이를 稗說體라고 하여 비난한 것은 우에서 언급한 바이나 박연암은 특히 우리의 고유한 民謠, 俚言, 수수께끼 등을 많이 활용하여 그가 인민구두 창작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뵈여 주고 있다.<sup>24)</sup>

①에서 신구현은 朴趾源이 漢文文體에서 독창적인 것을 개척했다고 하면서 그것이 가장 조선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②에서 윤세평은 朴燕岩이 漢文을 쓴 주요한 이유를 兩班들이 한문을 써왔기에 그들을 비판하려면 또 그들한테 작용을 일으키려면 漢文을 써야 한다는 데서 찾고 있는데, 이 점에서는 논리가 조금 이상하게 展開된 느낌이 든다. 그리고 漢文을 조선적인, 인민적인 것으로 개조했다고 역설했으며 人民的인 구두어를 인입하여 기존의 漢文體와는 전혀 구별되는 새로운 文體를 확립하였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박종식같은 學者들도 모두 이와 유사한 관점을 피력하면서 漢文使用의 정당성을 主張하였다. 北韓의 學者들은 朴燕岩의 文體에서 조선적인 것, 인민적인 것을 찾아 내기에 고심하였으며 때로는 이런 文體를 民族적인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홍기문은 朴燕岩이 中國의 白話小說을 많이 읽어 그것을 作品에서 表現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두어도 漢文化하였다고 쓰고 있다.

24) 윤세평, 『박연암과 그의 미학적 견해』, 국립문예출판사, 1957년, p.215.

『熱河日記』 전편을 통하여 적지 않은 白話가 등장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상당히 어려운 말도 끼여 있다. 혹서 중국사람 편에서 사용한 것을 그대로 적었다고 볼는지도 모르지마는 애초부터 그 뜻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렇게 활용되었을 수 없다. 예컨대 박연암은 <수호지>와 같은 白話小說을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의 다채로운 표현수법은 이런 사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박연암의 문체는 白話小說의 표현수법을 배워 온 것으로만 특징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구두어로부터 많은 것을 도입한 것으로서 그보다 더 큰 특징을 이루는 것이다. <馬駟傳>에서 '코등에 부채를 대고 바른편, 왼편으로 눈을 끔적거리는 것이 거간과 주름의 재주며(界準隔扇 左右踰用 駟倫之術)라고 한것이나 <양반전>에서 눈은 코끝을 내려다 보고 발꿈치를 모아서는 엉덩이를 고이며 동래박의를 열음우에 박 일듯 외워야 한다.(目視鼻端 會踵支尻 東萊博議 誦如水瓢)라고 한 것 등은 구두어로 말하는 것을 그냥 漢文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다. 이상의 인용문은 젊은 때의 작품이라고 하지마는 만년의 작품인 <許生傳>에서도 '실피는 술이 달아 빠지고 가족신은 뒤축이 찌그러지고 갓은 우그러들고 중추막은 까맣게 짙었고 코에서는 말간 코물이 흘렀다.'와 같은 마디는 역시 구두어의 번역이다.<sup>25)</sup>

이와 같이 흥기문은 구두어의 도입에 역점을 두면서 中國의 白話體를 가져다 使用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특징을 이루는 것은 구두어로부터 많은 것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 當時 다른 漢文小說家들보다 월등한 文體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하면서 그후의 漢學者 洪淵泉, 李寧齊를 능가했다고 쓰고 있다. 다른 學者들도 그의 文體에 대해 거의 유사한 觀點들을 가지고 있다. 신구현은 朴趾源의 文體가 中國의 雅體도 아니고 俗體도 아닌 자기만의 독자적인 文體임을 지적하면서 人民語의 利用, 俗談과 格言의 利用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모범적으로 정당하게 자기 창작에다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6)</sup> 윤세평은 人民性을 強調하는 한편, 朴燕岩이 구두어와 속담, 격언 등을 많이 사용하여 풍자의 비판성을 한층 날카롭게 하였고 웃음으로써 낙천성에도 일조했다고 쓰고 있다.<sup>27)</sup>

北韓의 學者들은 燕岩의 文體에 대해서 이와 같이 높은 評價를 하는가하면 또 朴燕岩의 漢文使用에서의 未熟性도 지적하고 있다.

25) 흥기문, 『박지원의 문체』, 『조선문학』, 1957년 3기.

26) 신구현, 「연암 박지원의 미학사상과 그의 창작의 사상예술적 특성」, 『조선어문』, 1957년 1기를 참조.

27) 윤세평, 『박연암과 그의 미학적 견해』, 국립문예출판사, 1957년. 본저서를 참조.

이따금 박연암의 글에서 구두어를 그대로 번역하다가 도리어 그 의미를 분명치 않게 만든 예도 없지 않다. 가령 후추를 통생이썬 삼키고 수박을 걸만 찧는다는 말을 '全吞胡椒 外絛西瓜'라고 하였는데 그 번역에서는 구두어의 기분이 나지 않는 것이다. 또 구두어의 의미를 잘못 알고서 그릇 번역한례도 있다. 가령 중부 방언에서 종기를 '곤데'라고 하는 것은 '뽕은 데'와 같은 말인데 指癰爲麗라고 해서 '고운 데'의 뜻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런 약간의 실패도 그의 거대한 수확과 비교해서는 실상 아무것도 아니다.<sup>28)</sup>

이와 같이 미숙성을 지적하면서도 이러한 미숙성은 그에게 아무런 손상도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아주 학구적으로 文體를 考察한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아무튼 北韓의 學者들은 그의 文體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홍기문은 심지어 박연암에 이르러 한 개의 조선적 漢文문체가 창성되었다고 主張하고 있다.<sup>29)</sup>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北韓의 學者들은 朴燕岩의 文體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다가 하면 긍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學者들은 燕岩文體의 朝鮮적인 것과 人民적인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 있다. 자국적인 특색을 강조하는 데서는 韓國 學者들의 견해와 별 다른바 없다고 생각되며 나름대로 燕岩의 문체를 정확히 규명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燕岩小說의 藝術特性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 보기로 한다. 燕岩小說의 藝術性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부분은 풍자예술이다. 김하명은 「연암 박지원의 풍자작품들과 그 예술적 특성」에서

실로 연암은 부패하고 사멸해 가는 낡은 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면서 풍자의 무기를 숨세 있게 구사한 가장 특출한 명수의 한 사람이며 이로써 조선문학을 세계적 수준에 끌어올린 공로자의 한 사람이다. 연암이 창조한 풍자적 形象들에서는 인민적인 분노의 감정, 그것을 산생한 사회 질서에 대한 부정적 立場만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그에 대한 멸시, 인민들의 도덕적 우월성의 감정도 전달되고 있다. 멸망의 운명에 직면한 양반통치 계급의 형상은 필연적으로 회극적인 것으로 될 밖에 없었다.<sup>30)</sup>

28) 홍기문, 「박지원의 문체」, 『조선문학』, 1957년 3기.

29) 홍기문, 앞의 논문을 참조.

30) 김하명, 「연암 박지원의 풍자작품들과 그 예술적 특성」, 『박연암연구논문집』, 1957년 10월.

라고 하면서 朴燕岩의 풍자가 그를 세계적인 수준의 作家로 되게하였다고 높이 評價하고 있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런 풍자작품들이 산생하게 된 것이 당시의 社會現實, 환경의 필연적인 結果라고 主張하고 있다. 봉건말기의 사회력사적 현실과 고질적인 신분차별이 없는 생활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18-19세기에 예리한 비판적 기백을 가진 풍자 작품들이 하나의 경향성을 띠고 활발히 창작되었다는 것이다. 燕岩 朴趾源은 자기의 소설 <양반전>에서 무능하고 타락된 정선고를 양반의 추악하고 가련한 몰골을 그려내었음을 뿐 아니라 양반이 부러워 양반의 신분을 산 천한 신분을 가진 부자의 입을 통하여 양반이란 천하 도적놈이라고 규탄하였고, 소설 <허생전>에서도 나라의 그릇된 정사를 바로잡을 아무런 권한도 능력도 없이 허장성세하는 양반 관료들을 죽일놈들이라고 호되게 타매하였다<sup>31)</sup>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풍자는 어떤 特点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

朴燕岩의 풍자의 첫 번째 特点은 신랄한 풍자와 더불어 조선의 낙천적인 유모아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박지원의 풍자는 한마디로 말하여 격동된 감정의 폭발이며, 힘이며, 고귀한 분노의 번개며 퇴성이었다. 박지원은 풍자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민옹전>에서 주인공 민옹의 형상을 통하여 정당하게 피력하였다. 박지원은 <민옹전>에서 민옹을 '우수한 번사'라고 하면서, '그의 판단과 견해는 일종의 해학이면서도 항상 진리와 풍자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풍자가 반드시 작가의 감정의 반사경을 통하여 파악된 생생한 시적 형상, 즉 진리와 관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풍자는 반드시 유모아가 안받침으로 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다. ……박지원의 유모아는 특수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 아주 락천적인 유모아, 아주 단순하고 탈속한 유모아가 그 하나인데 이는 조선적인 유모아다. 이 유모아는 비단 박지원의 작품 뿐만 아니라, 조선의 사실주의적 고전작품 전반에 걸쳐 볼 수 있는 그러한 유모아다. <홍보전>, <춘향전>이 그의 대표적인 실례로 되며, 박지원의 작품에서는 특히 <예덕 선생전>, <민옹전>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다름아닌 조선인민이 전통적으로 고유하고 있는 락천주의적 성격의 발로인 것이다. 이러한 유모아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만이 가질 수 있다. 홍보와 춘향과 같이 엄행수나 민옹

31) 박희왕, 「18-19세기에 창작된 풍자문학 유산에 대한 고찰」, 『조선어문』, 1994년 4기를 참조.

은 모두가 강한 성격, 강한 의지의 소유자들이다. 이들의 성격을 묘사하면서 작자는 주인공들의 입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건전한 유모아, 명량한 웃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락천주의적 탈속한 유모아와 함께 박지원의 작품가운데는 신랄하고 폭로적인 풍자가 있는 것이다.<sup>32)</sup>

신구현은 위에서 풍자가 유모아와 웃음과 결부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민족의 전통적인 審美習慣과 결부시키고 있다. 다른 研究者는 이 낙천적인 유모아를 웃음이라고 規定지으면서 연암은 독자들이 자기 작품을 일독만 하는 날에는 “배를 움켜쥐고 나가 자빠지며, 물었던 밥을 나는 벌처럼 뽀개” 웃길 것을 타산하였다 (『연암집』 4권, 射虎石記)고 하였고 인민의 창조적 力量, 그들의 승리의 불가피성을 정당하게 인식하고 있던 연암은 철저한 락관주의자요, 유모리스트였으며 신랄한 풍자가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그의 웃음과 풍자는 언제나 사물의 본질을 꿰뚫었고, 신랄하고 진실하였으며 강한 생활력이 있었다<sup>33)</sup>고 주장하였다.

北韓의 학자들은 燕岩의 諷刺에서의 웃음은 主人公의 言行의 불일치에서 오는 滑稽적인 要素를 의식적으로 과장하고 강조하면서 외부적으로 주어진 것과 실질적인 가능성간의 불상응이 웃음을 환기시킨다고 하였으며 燕岩은 描寫對象의 이러한 불상응적 現象을 붙잡아 내는 뛰어난 才能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虎叱>, <兩班傳>, <許生傳>등 作品들을 열거하고 있다. 김하명은 <虎叱>에서 북곽선생과 東里子의 외부적으로 주어진 것과 실질적인 가능성간의 불상응을 세세하게 실례를 들어 가면서 이러한 내용과 형식간의 불상응, 언행의 불일치, 행동에 있어서의 전후간의 모순의 강조 등에 의하여 풍자적 전형을 창조하는 수법은 <兩班傳>에서도 <許生傳>에서도 보게 된다고 지적하는 한편, 두 작품에서의 이런 점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러시아의 고골리의 <눈물어린 웃음>과 비교하고 있다는 점이다.

32) 신구현, 「연암 박지원의 미학사상과 그의 창작의 사상예술적 특성」, 『조선어문』, 1957년 1기.

33) 김하명, 「연암 박지원의 풍자작품들과 그 예술적 특성」, 『고전작가론』, 국립문예서적출판사, 1957년 10월.

이리하여 새 것과 낡은 것-내용과 형식의 사이의 모순은 웃음으로 넘어가고 이 웃음은 그것이 사회적인 성격을 띠면서 강한 증오에서 빚어진 嘲笑로 넘어 가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고골리의 풍자를 벨린스끼가 지적한바와 같이 위협과 공포가 있는 웃음이라고 말한다면 연암의 웃음은 야유와 증오에 가득찬 웃음으로 되며 풍자적 대상은 빈약하고 보잘 것 없는 인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sup>34)</sup>

여기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고골리의 諷刺에서의 웃음과 동양적인 朴趾源의 諷刺에서의 웃음을 심도있게 비교하지 못한 점이다.

朴燕岩의 풍자의 두 번째 특징은 신랄하고 날카로우며 그 비판성이 매우 예리하다는 것이다. 신랄한 풍자적 수법은 박연암의 예술작품을 특징지우는 주요한 특성으로서 그의 미적 견해와 불가분적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며, 감동적이고 인민성이 풍부한 사실주의 작품들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현상을 묘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작가의 긍정적인 理想이 표현되는 것이 통레이나 박연암은 자기의 긍정적 理想을 명확히 한 기초위에서 모든 부정적인 현상들을 폭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때문에 이조봉건제도가 빚어 낸 온갖 부정적인 현상-그의 추악하고 부패한 암흑면들을 세찬 풍자의 불길로 불태워 버리려는 그의 거부에는 명확한 그의 理想이 안받침되어 있다<sup>35)</sup>고 보고 있다. 미래에 대한 그 어떤 지향이 있었기에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미래에 志向을 둔 그의 諷刺는 한마디로 말하여 “격동된 감정의 폭발이며, 힘이며, 고귀한 분노의 번개며 회성이었다.”<sup>36)</sup> 미래를 志向하는 그의 諷刺는 본질적으로 사실주의적으로서 철저히 現實에 입각하고 있기에 매우 사실적이며 그 批判力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모두어 말하면 朴燕岩의 신랄한 諷刺手法은 극히 비판적인 것이며 當時의 現實에 대한 사실주의적인 묘사와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굳은 신념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김하명은 「연암 박지원의 애국사상과 그의 문학의 혁신성」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34) 김하명, 위의 논문, p.66.

35) 윤세평, 「박연암과 그의 미학적 견해」, 『고전작가론』, 국립문예서적출판사, 1957년 10월, p.189.

36) 신구현, 앞의 논문.

연암은 봉건사회의 지배계급을 풍자적으로 형상함으로써 당대의 부정적 현실에 대한 분노의 감정과 비판적 입장을 뚜렷이 표시하였다. 그의 작품들에 높이 올리고 있는 비타협적이며 분노에 찬 웃음은 그러한 현상을 산생시킨 봉건적 사회질서에 대한 인민대중의 증오와 멸시의 감정을 전달하는 동시에 그들의 정당성과 힘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하여 연암의 풍자작품은 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폭로하는데만 그치고 있지 않다. 그의 작품들에는 착취받는 인민대중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들의 정치적 도덕우월성에 대한 신념이 하나의 지향으로 맥맥히 흐르고 있다. <범의 꾸중>과 같이 양반 사대부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기는 것을 기본 과업으로 하고 있는 작품에서조차 광명한 미래를 갈망하는 시대의 긍정적 理想을 뚜렷이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연암의 사회미학적 理想의 인민적 성격을 확신성 있게 말해주는 단적 실례이다. 그의 작품이 색조가 밝고, 비판의 기백이 그처럼 강렬하며, 학관주의 정신이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은 모두다 인민의 생활과 그 창조적 力量에 원천이 있는 것이다.<sup>37)</sup>

유감스러운 것은 諷刺의 신랄성에 대하여 예술적인 측면에서 깊이 있게 분석하지 못하고 사회역사적인 측면에서 그 성질을 考察했다는 점이다. 아무튼 諷刺의 예술적 特點에 대해서 희극과 비극의 교차라든지, 웃음의 유모아라든지, 신랄한 諷刺라든지의 여러면에서 燕岩小說이 가지고 있는 그 特殊한 風格을 밝혀내기에 많이 고심했음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朴趾源의 小說의 예술특성에서 그의 短篇小說의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分析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하자. 이부분 역시 北韓學者들이 필목을 많이 들인 부분이며 그들의 用語대로 한다면 朴趾源은 古典小說史에서 短篇小說의 명수라는 것이다. 短篇小說이란 生活과 事件, 人物의 용적에 依하여 제약되는 아주 짧은 분량의 小說임은 틀림이 없다. 확실히 朴燕岩은 古典小說史에서 短篇小說의 이런 特性을 가장 잘 살린 作家라고 할 수 있다. 北韓學者들도 이점에 대해서 많이 유의했고 깊이 있는 分析을 시도했다. 김하명은 朴趾源이 자국에서 일찍부터 발전하여온 傳習식을 취하면서도 단순한 일대기적인 서술구조를 벗어난 점에서 獨特하다고 하면서 이런 점들은 서두와 결말에서 두드러지게 表現된다고 밝히고 있다.

37) 김하명, 「연암 박지원의 애국사상과 그의 문학의 혁신성」, 『어문연구』, 1967년 17.

그 이전의 많은 소설작품들은 흔히 ‘화설 조선국 세종시절에 한 재상이 있되……’(홍길동전), ‘숙종대왕 직위초에 성덕이 넓으시사……’(춘향전) 등 사건진행의 연대를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긍정적 주인공들이 모두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맺고 있으며 전작품의 경우에는 주인공의 생애를 시간적 순차에 따라 서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연암의 10편의 단편소설은 그 시작과 끝맺음이 모두 자기의 고유한 사상주제적 과업에 알맞게 주인공의 성격이나 사건발전의 논리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처리되어 있다.……특히 연암의 작품들에서는 끝맺음을 작품의 기본사상을 더 심화하고 더욱 두드러지게 밝혀내도록 솜씨있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역시 그의 사상적 입장의 명확성 및 철저성과 관련되는 것이다.<sup>38)</sup>

이와 같이 서술하면서 저자는 <兩班傳>과 <김신선전>의 결말을 실례로 들었다. 古典小說에서, 특히는 傳記類 小說에서 도식적으로 쓰이던 출생담—고생담—성공담—후일담의 패턴을 뛰어 넘어 근대의 短篇小說답게 서두에서 직접 事件의 발전으로 돌입했고 또 결말에서는 인과보응이나 권선징악의 후일담을 서술하고 있어 짧은 구성에다 큰 內容을 담을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른 學者들도 이와 유사한 見解를 펴고 있다.

박지원의 단편소설은 첫째로 평범은 하나 심오하고 일생을 걸려도 다할 수 없는 그러한 생활을 집중시키고 있는 심각한 사건을 좁은 용적 안에다 다 집어 넣고 있으며, 둘째로 이러한 生活, 이러한 사건들을 천번 만번 련마된 모난 수정과 같이, 물방울이 태양을 반사하듯이, 박지원의 단편소설은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셋째로 박지원의 단편소설은 사건은 심각하고 그 용적은 좁으나 아주 경쾌한 형식으로 당해 현실생활이 원하고 있는 모든 것—경쾌한 성격의 스케취, 인간과 사회에 대한 쓰디 쓴 풍자와 해학, 감정의 심오한 비밀, 정열의 준엄한 유희등을 섞어 가면서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재빠르면서 그러나 가볍게 넘나 들고 있다.<민웅전>을 읽어 보라)<sup>39)</sup>

같은 명제(좁은 용적)지만 부동한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文學은 現實生活의 反映이다. 그러나 이 반영은 現實을 집중하고 개괄하여 전형화 시킨 것으로서 現實生活보다 한 차원 높은 것이어야 하며 이때에야만이 作品이 미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데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저자는朴

38) 김하명, 앞의 논문.

39) 신구현, 「연암 박지원의 미학사상과 그의 창작의 사상-예술적 특징」, 『조선어문』, 1957년 1기.

燕岩이 現實生活에서 代表性을 띤 事件들을 선택했고 또 이런 事件들을 개괄하고 연마하여 높은 高度에서 승화시켰고 경쾌한 형식을 使用하면서 이 대상에서 저 대상으로 이 事件에서 저 事件으로 재빠르게 옮겨 갔기에 짧은 용적에 큰 內容을 담을 수 있었다고 여긴다. 北韓의 다른 學者들도 朴燕岩의 短篇小說의 特性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위와 같은 유사한 見解를 지니고 있으면서 그 特性을 分析하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燕岩이 간결한 필치로써 人物性格을 선명하게 부각하는데 成功했기에 그의 短篇小說이 成功했다고 여긴다. 또 어떤 學者들은 燕岩이 小說의 교양적 의의를 너무 강조했기에 정론성이 강해 심미성이 떨어진다고 여긴다. <虎叱>같은 경우, 범의 장황한 연설은 취할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燕岩의 短篇小說의 特性에 대해 사회역사학적인 방법으로 갖지않은 側面에서 考察을 시도했다. 以上에서 燕岩小說의 文體, 諷刺 및 그가 短篇小說의 명수라는 세가지 側面에 치우쳐 간략히 北韓學者들의 見解를 分析해 보았다.

## V. <兩班傳>, <虎叱>, <許生傳>

北韓學者들이 燕岩小說을 考察하면서 필목을 제일 많이 들인 小說들이 이 세편이다. 文學史에서도 이 세편이 제일 많은 比重을 가지고 다루어졌고 著書나 論文들에서도 이 세편을 제일 높은 위치에 놓고 評價한다. 이 와중에 상례로 <兩班傳>을 제일 처음 分析하면서 높은 評價를 내리고 있는데 한결같이 <兩班傳>은 內容과 形式면에서 뛰어난 作品으로서 18세기 短篇小說創作에서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며 또 短篇小說의 발전과정을 잘 보여주는 作品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작품분석에서 일반적인 패턴은 주제를 도출해 내면서 小說의 思想內容을 서술하고 그다음 人物性格을 分析하고 마지막에 作品의 形式 즉 예술특점을 천명한다. 이 사유방식으로 <兩班傳>을 살펴 보기로 하자.

사실상 50년대의 <兩班傳>의 主題分析이나 90년대의 分析이나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學者들 사이에서도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한갓 문벌을 재물로하여 조상디만 팔아 먹는 선비들의 모든 생활의 종말이 이 작품의 기본 주제다.”<sup>40)</sup> 이것은 50년대의 관점이다. 90년대에도 이와 다름 없이

40) 『조선문학통사』 (상), 사회과학원출판사, 1959년, p.384.

<兩班傳>의 主題를 표명하고 있다. 韓國의 學者들은 北韓에서 주체사상이 나온 이후 그 평가가 많이 달라 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세밀한 고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 “<양반전>은 한갓 문벌을 재물로 하며 조상덕만 팔아 먹는 선비들의 모든 생활의 종말에 대한 문제를 기본 주제로 하고 있다.”<sup>41)</sup> 이와 같이 90년대에도 50년대의 그대로 主題 파악을 하고 있다. 김춘택은 <양반전>의 주제를 진보적 문학이 남긴 작품으로서 부패무능한 양반의 풍자적 형상을 통하여 당대 사회계급관계의 모순, 당대의 계급투쟁을 보여 주고 있다<sup>42)</sup>고 표명하면서 계급투쟁에 초점을 맞추어 分析하고 있는데 作品의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된다.

성격분석에서는 양반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도무지 일하지 않고 무위도식하는 기생충적인 성격과 비굴성”이라고 못박고 상놈부자는 “이해타산이 극심한 사람”<sup>43)</sup>이라고 규정지었다. “양반이란 위선과 허례허식에 물젖어 있는 존재인 동시에 기생충적 생활을 하면서 온갖 약탈과 전횡을 일삼는 존재이며”, 상사람 부자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졌으나 봉건적 신분제도로 하여 양반들의 천대를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sup>44)</sup>라고 分析하고 있다. 앞의 견해와 거의 일치한다. 形式面에서는 諷刺적인 手法을 재치있게 사용하였고 비교적 짜인 구성속에서 대화로써 人物性格을 부각하고 또 대조적인 극적묘사를 생동하게 하였고 불필요한 說明이나 주정토로는 피했다는 것이 北韓學者들의 公論이다. 그러나 이러한 見解에 반론을 제기한 學者도 있다.

<양반전>에서의 두 개의 증편에 려져되어 있는, 양반 노릇을 하기 위해서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조목들과 양반이 누릴 수 있는 이익들은 작품의 사상적 내용의 핵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추상적이며, 디테일(세부묘사)이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앞부분은 더구나 그렇다. ……일반적으로 고도의 전형화를 시도하면서도 전개된 개성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짧은 정론 문학의 특성은 같은 <양반전>에서 양반, 부자, 군수등의 형상이 말할 나위없이 전형적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개성으로 되지 않고 있는 데서도 볼수 있다.<sup>45)</sup>

41) 『조선고전문학선집』 (90), 『박지원작품집』 (66), 문예출판사, p.23.

42)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부, 1988년, p.449.

43) 박중식, 『연암 박지원의 창작방법에 대하여』, 『고전작가론』, 국립문예서적출판사, 1957년 10월.

44)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8년, p.451.

45) 고정옥, 『조선고전문학에서의 사실주의의 발전단계들』, 『조선어문』, 1960년 4기.

고정옥은 위에서 小說의 금물인 정론성이 강하게 됨에 따라 세부묘사가 잘 되지 못하고 인물형상도 개성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비교적 公正한 批判이라고 할 수 있다.

<虎叱>에 대한 분석에서는 <虎叱>을 <兩班傳>의 연장으로 分析하고 있는 傾向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상 주제상, 기초에 있어서 <兩班傳>과 동일한 계열에 속하는 것이 바로 <虎叱>이라는 것이다. <虎叱>과 <兩班傳>의 차이는 묘사된 사건과 등장 인물들에 있다고 보며 <兩班傳>의 스토리의 출발이 양반이 환자를 절취한 사건으로부터 전개된다면 <虎叱>은 양반 사대부들의 정신적 파탄으로부터 오는 남너간의 痴情 관계로부터 사건이 발전된다는 것이다. <兩班傳>의 사상적 경향성이 양반 매매 계약 체결 장소에서 폭로된다면 <虎叱>에서는 범의 選肉會議에서 폭로된다고 본다. <兩班傳>에서는 어색하게도 양반과 상놈부자에 그 고을 군수가 등장하여 극적 갈등을 조성시키고 있다면 <虎叱>에 있어서는 작자가 탁월한 솜씨로 인민의 리해관계의 옹호자로 '범'의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양반의 죄상을 폭로하고 논죄하여 그를 완전히 굴복시킨다는 것이다. <兩班傳>은 상놈부자가 도망치는 것으로 대단원을 이루었다면 <虎叱>은 양반이 농민들 앞에 꿇어 앉아 애걸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다<sup>46)</sup>는 관점이다. 사건과 人物形象 설정이 다를뿐 그 基本思想은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兩班傳>에서보다 그 主題가 한층 더 심화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양반 통치배들과 사대부들의 위선성, 포학성, 권력에 대한 아침의 주제는 이 작품에 와서 한층 더 예리화된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sup>47)</sup>고 하였고 범의 형상은 당시 압박 받고 착취받으나 점차 자기 힘을 깨닫고 투쟁에 궤기하고 있던 농민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主題思想 및 人物性格의 참신성에서 <兩班傳>보다 한층 더 심각하게 묘사되었지만 예술형식에서는 그리 成功된 作品이 못된다고 評價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들은 <虎叱>의 첫머리를 主例로 들고 있는데, 작자는 범의 종류와 습성의 설명에 전체 작품량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분량을 주고 있어서 진실성에

46) 박종식, 「연암 박지원의 창작방법에 대하여」, 『고전작가론』, 국립문예서적출판사, 1957년 10월, p.134.

47) 『조선고전문학선집』 (90), 『박지원작품집』 (66), 문예출판사, p.39.

손실을 주고 있으며, 같은 작품에서 범의 한 개 대화가 또한 작품의 기본 줄거리의 태반을 차지함으로써 묘사를 서술로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 오고 있다<sup>48)</sup>고 認定한다. 이와 같은 評價는 小說의 실제에 부합되는 비교적 냉정한 批評이라고 할 수 있다. <虎叱>의 결말부분에 이르러 높은 평가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作家의 낭만주의적 傾向에 대해서 높은 評價를 내리고 있으며 作品의 進歩性에 대해서도 극찬을 내리고 있다.<sup>49)</sup> 모두어 말하여 兩班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아름다운 未來에 대한 낭만적인 묘사가 결합되었다는 것이다.

<許生傳>은 이 세편의 小說중에서도 가장 높은 評價를 받는 作品이다. 특히 作品의 主人公 許生의 形象과 무인도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許生의 形象은 “시대의 선각자”, “실학자들의 ‘이용후생’의 견해를 실현하려는 인물”, “선진적 지식분자로서의 형상” 등으로 규정지어지고 있다. 제한성은 허생이 “성각자요 애국적 지사로 만족”하고 다시 선비로 돌아가 계몽주의자로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어떤 인물을 당시 상황을 떠난 너무 높은 측면에서 評價한 結果라 하겠다. 김춘택은 소설 <허생전>은 가난한 선비인 허생이 장사를 잘하고 무인도에 ‘理想社會’를 세우는 이야기를 통하여 실학자들의 ‘利用厚生’의 진보적 사상과 이조말기의 어지러워진 사회현실을 바로 잡으려는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sup>50)</sup>고 주장함으로써 비교적 실제에 가까운 評價를 내리고 있다. 다른 한 측면에서는 민주주의적인 지식분자로 점을 찍으면서 時代의 선구자적인 점을 強調하고 있다. 즉 작자는 당시의 조선사회가 나가야 할 새로운 생활에로의 길을 보여 주려고 하면서 낡은 농노제 봉건사회의 대표자들과의 대비에서 민주주의적 理想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선진적 지식분자로서의 허생의 形象을 창조하였다<sup>51)</sup>는 것이다. 이들의 許生의 形象에 대한 分析을 통해 우리는 세가지 점을 알 수 있다. ①許生이 안성을 中心으로 장사하는 장면은 실학파의 利用厚生의 見解를 보여주는 것인 同時에 當時에 상품화폐 경제관계의 발전정형에 대한 예술적 表現이기도 하다는 見解를 밝히고 있다. ②小說은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던 李朝末期의 現實과는 판이한 理想社會를 許生이 농민들의 힘에 의하여

48) 고정욱, 「조선고전문학에서의 사실주의 발전단계들」, 『조선어문』, 1960년 4기.

49) 『조선고전문학선집』(90), 『박지원작품집』(66), 문예출판사, 1994년, 42쪽을 참조.

50)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8년, p.453.

51) 『조선고전문학선집』(90), 『박지원작품집』(66), 문예출판사, 1994년, p.43.

세우는 過程을 통하여 實學派 즉 當時 지식인들의 理想을 보여 줄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③낭만적인 특성이 許生의 形象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봉건적 질곡과 사대주의로 말미암아 썩을대로 썩은 李朝末期의 現實에 무인도의 理想社會를 대치시키면서 낭만적인 方法으로 理想社會를 描寫하고 있다는 것이다.

“理想社會”-무인도에 대한 評價는 學者들의 見解가 거의 一致하다. 무인도의 ‘理想社會’는 착취와 압박이 더욱 심해진 당대의 형실과는 판이하게 포악한 王道, 불합리한 신분관계도 없고 누구나 다 일하는 사회라는 것, 사람들은 새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 풍족하게 살뿐 아니라 글도 배우고 예의 범절도 지키면서 문명한 생활을 해나간다는 것, 소설이 보여준 이러한 ‘理想社會’는 그 사회정치적 기초에 있어서나 물질적 기초에 있어서 아직 료락적이고 공상적인 소박한 사회 이기는 하나 그것이 가혹한 봉건적 착취와 압박을 반대한 당대 인민들의 행복에 대한 지향과 잇닿아져 있는 것으로 하여 당시로서는 진보적 의의를 가진다는 것<sup>52)</sup>이다. 당시 현실과의 대비에서 그 진보성이 나타난다는 것과 이것은 결국은 공상이라는 것, 이 두가지 관점으로 개괄된다. 흥미로운 것은 <홍길동전>과의 대비이다.

허균도 그 룰도국에서 빈궁과 고통이 근절된 행복한 사회의 건설을 의도하였다. 그러나 그는 당시의 시대적 제약성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는 봉건국가 기구를 재현시키는 것으로 그쳤다. 이에서는 홍길동 자신이 왕으로 즉위할 뿐 아니라 그의 일가 친척들이 모두 벼슬을 받고 있다. 연암은 자기의 이상사회를 구상하면서 어떠한 지배자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고통과 가난속에 헤매던 농민들 ‘변산군도’ 2천명으로써 기본성원을 이루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회에는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자유로운 로력과 상호간에 존경하며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레절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러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이 없었던만큼 허생 자신도 그 이상사회 건설을 ‘조그만 시험’으로서 간주하고 있으며 일단 질서가 잡힌 후에 ‘시험은 끝났다’고 하고 도로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sup>53)</sup>

52) 김춘택, 앞의 책, p.457.

53) 김하명, 「연암 박지원과 그의 문학」, 「고전작가론」, 국립문예서적출판사, 1957년 10월.

위에서 김하명은 <許生傳>에서의 理想國이 비록 空想이기는 하지만 <홍길동전>에서보다 훨씬 진보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대다수 대중의 眼 淵을 表現하였다고 하면서 높은 評價를 주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許生傳>은 許生이라는 人物形象을 成功的으로 부각했고 군도 2천명을 거느리고 理想社會를 건설한 것이 이 作品의 가장 重要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이 두 부분이 生活의 眞實에서 벗어 났다고 여기면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見解도 있다.

<허생전>의 슈제트(이야기)와 주인공의 행동은 전형적 성격을 체현하는데 원만하게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감을 준다. '무인도'의 공상적 성격은 별 문제로 하더라도 여기에는 적지 않게 생활의 논리를 뛰어 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의 전개는 독자들에게 통쾌감을 주고 있으나 생면부지의 변부자에게서 만금을 얻어 내며 상품을 매점하여 거금을 벌며 무인도를 나오면서 장기 무역에서 얻은 돈 중에서 50만량을 바다에 버리는 등은 생활적 형식에서 유리된 감을 준다.<sup>54)</sup>

고정옥은 여기서 주요하게는 사실주의 創作方法理論에 근거하여 許生의 形象과 生活의 논리를 고찰해 본 것이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燕岩의 대표적인 세 편의 小說을 北韓學者들이 어떻게 分析하는가를 살펴 보았다.

## VI. 結 論

1. 北韓의 朴燕岩小說 研究는 50, 60년대에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80년대부터는 그 위상이 50, 60년대에 비해 훨씬 떨어졌다. 그것은 實學思想이 當時에는 매우 진보적이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그 思想이 그리 선진적이 되지 못한다는 薄古貴今의 理論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小說研究에서 50, 60년대에 다져 놓은 기본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韓國學者들이 主體思想이 나온 후 대략 70년대부터 觀點이 크게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세밀한 고증을 거치지 않은 結果이다. 물론 그가 당시의 지배적 이념인 유교사상에 물들어 있었다

54) 고정옥, 앞의 논문.

거나 王道政治에서 벗어나지 못해 社會가 나아갈 근본적인 方向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제한성이 크게 지적되고 있지만 이것 역시 50, 60년대에도 제기되었던 관점이다. 한마디로 50, 60년대는 北韓의 朴燕岩小說 研究의 黃金時期이다.

2. 北韓에서는 나름대로 朴趾源의 小說과 그의 著作들을 수집하고 整理했으며 학구적인 精神으로 誤記된 점들도 바로잡아 나갔다. <虎叱>의 “駁”을 “駁”으로 오기된 것을 정확하게 교정했다. 뿐만 아니라 朴趾源의 小說들을 모두 우리말로 잘 다듬어 훌륭하게 翻譯해 냈다. 研究著書들도 상당수 出版되었고 가치있는 論文들도 많이 나왔다. 研究에서의 사실주의 理論의 適用이라든가, 時代狀況과의 관련을 주목한 점이라든가, 朴趾源의 漢文體에 대한 分析이라든가, 諷刺의 特性같은 것을 分析한 점은 朴趾源小說研究에서 많은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 준다.

3. 研究方法이 단일하고 너무나 이데올로기에 치우친 나머지 作品分析에서 실제와 거리가 먼 結論들이 많이 도출되었고 政治와 文學을 同一視하는 傾向이 다분히 풍기며 內容면에서의 分析을 우선으로 하여 形式을 홀시하는 폐단이 생겨났고 學者들간의 見解가 거의 일치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앞으로 남북한학술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때가 되면 資料교환이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이며 朴趾源소설연구도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임은 自명한 일이다. 南北韓 朴趾源소설연구의 비교는 남은 과제로서 다음 기회로 미루어 둔다.